

연대 14인문 2번 답안

공감의 실현 여부는 상상의 여부에 달려있다. 즉, 주체가 남의 입장을 상상하여 그 처지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일 때 공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 공감의 실현여부는 폭력의 여부를 결정한다. 공감이 일어나면 폭력은 억제되는 것이다. (라)의 워딩턴은 어머니를 살해한 강도들에게 복수하는 상상을 통해 그들이 폭력적 본성에 지배당하는 상태에 놓여있고 자신도 그와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강도들을 딱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에 대한 연민을 뜻한다. 즉, 워딩턴은 강도들의 상태뿐만 아니라 그들의 감정까지도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감은 강도들에 대한 용서로 이어졌다. 정리하자면, 상상을 통해 공감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형성된 공감이 폭력을 억제한 것이다.

반면에, 상상의 부재는 공감의 결여로 이어진다.

(가)의 아이히만과 (다)의 아킬레우스는 각각 유대인들과 튀카온을 온전히 공감하지 못했다. 이는 타인의 감정에 대한 상상의 부재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가)의 아이히만은 학살당한 유대인들이 느꼈을 슬픔을 상상하지 못했다. 이는 공감의 실패로 이어졌고 이와 같은 공감의 결여는 6년간에 걸친 지속적인 학살로 이어졌다. 즉, 타인의 감정에 대한 상상의 부재가 공감의 결여를 낳고 그로 인해 폭력이 발생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다)의 아킬레우스 역시 튀카온을 온전히 공감하지 못했다. 그는 튀카온의 죽을 상황에 놓인 상태에 대해서는 본인도 결국 죽게 될 운명이라고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튀카온이 곧 죽게 될 자신의 처지에 대해 느끼는 비탄의 감정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 못하다. 이와 같은 아킬레우스의 튀카온의 상태와 감정에 대한 공감의 이중적인 태도는 그가 튀카온의 상태와 감정 각각에 대해 상상을 했는지에 여부에 기인한다. 그는 튀카온의 처지에 대해서는 파트로클라스와 자기자신을 결부시켜 상상했다. 이는 공감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그는 튀카온의 감정에 대해서는 다른 것과 결부시켜 상상하지 못했다. 이는 공감의 결여를 낳았고 결국 살해라는 폭력으로 이어졌다.